

광야생활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절대대대

-복음으로 여는 민수기-

민수기 21:4-9, 요한복음 3:14-16

정운돈 목사님

* **민21:4-9**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허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 **요3:14-16**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현장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혹시 갈등과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는 호르 산이 어딘지, 홍해 길이 무엇이고 에돔 땅이 무엇인지 모른다. 광야 길이 뭔지 모른다. 여기서 백성의 마음을 상하게 한 ‘길’은 광야 길이다. 호르 산에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길이 막혀서 정반대 밑으로 홍해가 있는 길로 갔다. 그 중에서 더 빠른 길이 있는데 가장 먼 오른쪽 끝의 길로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마지막 순간이었다. 저는 올해 강남노회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광야 길을 걸어 보았다. 20분, 30분 걸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나 만약 거기에 수백 만 명과 짐들과 짐승들이 있었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서 원망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오늘은 민수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민수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39년 생활 중 주요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텐트를 치고 있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대역섯 장 정도로 요약되어 쓰여 있다. 민수기 1장의 시작은 홍해를 건

난 후, 약 12개월 후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 12개월 동안에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였다. 그게 출애굽기와 레위기 대부분의 내용이다. 하나님이 일 년 동안 주셨던 율법의 내용이다.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숫자’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민수기의 1장과 26장에 두 번 인구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60만 명이지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기성세대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후대들의 인구이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램넛트의 인구조사인 것이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인구들은 모두 다 죽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60세였던 것이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율월절 날 피를 바르고 사망이 지나간 일이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애굽해서 나와 홍해를 건넜는데 거기가 광야다.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도 끊어야 할 것도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마귀한테 맞고 하나님한테도 맞는다. 그러나 괜찮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생활도 어렵지 않았다. 광야가 어려운 이유는 안 믿기 때문이다. 믿지 않으니까 사단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도 도우시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여행처럼 생각했다. 언약을 잡고 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진다. 힘들지 않다. 운동선수들도 힘들지만 절대목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절대언약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일과 직장이 힘든 게 아니라 내게 절대목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힘이 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 기뻐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후대들에게 바른 신앙과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하고 있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처럼 힘 있는 민족이 없다. 그 뿌리가 광야다. 2천 년간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가 광야 40년동안 정체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후대들에게 언약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어려움이 되어야 한다. 언약을 따라가면 광야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가 잘 되어야 한다. 내가 힘들고 실패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성공이다. 그럴 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여러 교회와 노회를 살리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이게 237이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성경과 전혀 관련 없이 산다. 현실만 보기 때문이다.

1.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기로 하겠다.

(1)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신앙적인 교훈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대대다.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공부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그런데 중간에 원망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원망하는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원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내용들을 민수기에서 찾아보겠다. ① 민수기 14장 2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사람은 꼭 죽고 싶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살기 싫다느니 말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목표와 인생을 살아갈 이유, 어떤계약이 없으면 다 원망할 수밖에 없다. 원망할 조건이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원망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절대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클수록 전회위복으로 만든다.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 ② 다음으로 또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다. 민수기 16장 41절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우리들은 부족하면 부모님 원망하고, 선생님 원망하고, 상사 원망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원망한다. 절대 하나님

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원망한 그것이 반드시 누구에게든 간다. 쉽게 원망하시면 안 된다. 반면에 믿음과 감사로 헌신하면 그게 나의 후대들과 미래에 어떻게 큰 축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③ 다음으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함께 싸잡아 원망하고 있다. 함께 읽겠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모두 세상의 것들이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육신, 성공이다. 하찮은 음식, 물, 먹을 것 때문이었다. 조금 손해나면 싫고 조금 이익이 나면 좋아한다. 그 고난을 이기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따라간다.

(2) 다음으로 민수기는 믿음의 절대명대를 말씀하고 있다. 가나안으로 보낸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하였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먼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2명 중의 10명이 원망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민주주의는 아니다. 교회는 믿음주의여야 한다. 믿음의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세 번째로 민수기는 후대 램넌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 램넌트의 절대명대를 말씀하고 있다. 출애굽한 60만 명의 어른들은 불신앙하고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언약과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대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비록 기성세대가 불신앙하고 원망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후대 램넌트들은 달랐다. 결국 그들은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정복하였고 가나안 땅을 함께 원니스되어 정복하였다. 저는 어른들보다 메시지 잘 따라가고 믿음 좋은 램넌트들을 보면 기쁘다. 반면에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는 램넌트들이 많다. 거듭나야 한다.

2. 민수기를 통하여 보여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의 절대명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민수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복음은 광야훈련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광야의 고난과 고통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가는 통로인 경우가 많다. 또한 광야를 체험하고 광야훈련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전도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복음, 오직복음, 완전복음으로 가는 발전단계이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완전복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뿐이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란다. 진정한 전도캠프와 선교는 현장에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번 주부터 전도 캠프가 시작된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숨겨져 있는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된다. 내가 꼭 그렇게 될 필요 없다. 베드로처럼

30년 성장하면 된다. 그러나 불신자인데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게 훨씬 더 쉽다. 비올과 예수님은 스스로 따라오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한다.

(2) 두 번째로 민수기는 싹 난 지팡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 주고 있다. 민수기 17장 5절이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한 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부터 우리들은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다.

(3) 다음으로 민수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절대명대를 알려주고 있다. 다시 한번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가 광야생활을 함께 갈 때 우리의 가나안 땅을 만들어야 하겠다. 저의 믿음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에서 내려오는 믿음 때문이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설립하신 ‘공생원’이라는 곳을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했다. 그러나 저는 복지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복음 안으로 들어갔다. 복음과 복지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세계화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협동조합의 개념을 찾아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몬드라곤’이라는 기업이 있다. 200개 넘는 회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는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주역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지역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활동한 곳이다. 바르셀로나 안에서 가우디의 건축물이 그 동네를 다 바꿔 놨다. 가우디가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엘’이라는 사람이 가우디를 알아보고 건축을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페인 안에서 소외되고 힘들고 광야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우리가 힘들다면 하나될 수 있는 기회다. 선교도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절대사명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모델을 만들자.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 발판을 만들고 절대명대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복음과 언약의 명대이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아야겠다. 그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2) Vision. 비전 명대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3) Dream. 드림 명대이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깊은 기도 속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플랫폼, 파수명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4) Image. 이미지 명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만약 우리들이 광야생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명대를 이해한다면 7가지 명대, 7가지 여정, 3가지 이정표를 실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5) Practice. 실현 명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능한 훈련, 서밋타임, 전도훈련 등 작은 미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이번에 제가 스페인 가기 전에 스페인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 작은 것부터 준비해라.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 결국에는 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1.3.8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나의 현장에 세팅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소중한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237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